

가정과 교육과정의 구안을 위한 기초연구(I): 델파이 조사연구

유 태 명* (경성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현장과 학계가 협동적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워 나가야 할 당위성을 인식하여 2차년도에 걸쳐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1차년도에 수행된 연구로서 가정과 교육과정 구성의 이론적 체계를 구안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방법을 통하여 학계와 현장의 합의와 수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가정교육과 교수, 가정과 교육 관련 연구원, 장학사,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력 5년 이사의 가정과 교사로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 걸쳐서 시행되었다. 1차 델파이 설문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고려해 가정과 교육이 가져야 할 성격은 무엇인가?”, “가정교과 교육목표와 내용구성을 위한 이론적인 모형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가정교과를 통해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인가?”, “초등 실과와 중등 가정과의 연계 여부 및 구체적인 연계 방법은 무엇인가?”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 응답내용을 유목화하여 공통 요인별로 정리하였다. 네 영역의 총 76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1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의 ‘매우 동의한다’까지의 5간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지는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2차 델파이 설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의 중앙치와 사분점간 범위를 산출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로, 해당 전문가의 응답은 x로 나타내어 2차 조사 응답자 대다수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자료 분석은 각 영역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합의 정도와 수렴정도, 집단간의 합의 수준에 대해 이루어졌다. 전체 응답자의 합의 정도는 표준편차로, 3개 집단 간의 합의는 일원분산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델파이 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한 목적 중의 하나인 회를 거듭함으로 인한 수렴은 2차와 3차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분산비로 측정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가정과교육의 성격으로 개인과 가족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교과,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교과, 가정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교과,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주는 교과,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교과, 의, 식, 주, 소비, 가족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갖게 하는 교과, 가정생활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며, 그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과,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교과가 의미있는 항목이었다. 가정과교육의 내용구조에 대하여는 3차원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중 X축으로 가정생활 영역, Y축으로 문제해결과정, Z축으로 교과의 핵심적 개념과 범교과적 고려점에 대한 합의와 수렴을 이루었다. 가정교과를 통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지식의 이해, 문제해결능력, 고등사고능력, 일, 자신, 가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합의와 수렴을 이루었다. 초등실과와의 연계는 초등실과의 가정영역을 강화하여 중등 가정과 연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